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5월 29일 (제84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주가사?

기도원 집회를 마치고 사업을 하는 장로와 골프를 쳤다. 그 장로가 그렇게 힘들다는 워크아웃을 벗어났기에 기쁨으로 만든 자리였다. 그런데 그 장로가 골프를 치다말고 뜬금없이 "목사님, 주가사라고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뭐 주태백이라고? 장로가 그런 농담을 하면 되나?" 했더니 그가 한바탕 웃었다. "주가사는 제가 세운 이 세상을 사는 우선순위예요. 먼저 '주(主)'는 주님이고요, 그 다음이 '가(家)' 가정이고요, 그리고 '사(事)' 사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정립되고 나니까 어려운 워크아웃에서 벗어나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맞다. 인생 제반사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먼저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요, 둘째는 사람, 특히 가족에서 신뢰받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고층빌딩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기초를 든든히 파고 쌓아야 하듯, 첨단과학을 위해 기초과학이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하듯, 경제개발도 인프라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합리적이듯, 우리의 삶도 먼저 해야 할 일 있다는 것이다. 순서가 바뀌면 하물며 음식 맛도 달라지거늘 인생이 어찌 달라지지 않겠는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 뒤집힐 수 없는 우선순위는 '주',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세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고 하셨다. 이것이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할 인생의 기초다. 기초가 허술하면 삼풍백화점이,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 사업을 시작하는가? 우선은 자본이 마련되어야 하고, 판로도 개척해야 한다. 목회를 시작하는가? 목회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 그것에 전무하라. 선교사로 나가는가? 우선은 그 나라의 언어가 준비되어야 함을 잊지 말라. 삶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를 세우라. 이것이 인생의 참 지혜다.

오늘은 나의 제일 좋은 친구

목사님의 최대 강점은 단에서 선포하신 내용을 바로 실천에 옮기신다는 점이다. 절약에 대한 설교를 하시곤 바로 핸드폰을 알뜰폰으로 바꾸신 것은 아주 단적인 예이다.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언행일치(言行一致)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지난 화요일 아침, 서울교회 목사들 및 교육부 전도사들을 본부 사무실로 불러 변화를 두려워말고, 오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셨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동식물들은 모두 멸종했다.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면 개혁의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내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았는가?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오늘도, 내일도 없다. '분재에 물을 줘야지, 내일 주지', 이러다 집회에 다녀오니 죽어버렸다. 병원에서 보고 싶다며 꼭 만나자는 어느 성도의 연락을 받고도 집회를 핑계로 '내일 가지' 하다 보니 그 환자가 그만 유명을 달리해버렸다. '내일 자수하지' 하던 범법자가 오늘 검거되어버렸다. 내일은 능력 밖이다. '오늘이 나의 남편이다. 오늘이 나의 아내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될 것이다. 'Today is my wife!', 'Today is my husband!', 'Today is my friend!' 오늘을 최고의 선물로 알고 오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은 과거의 결과요,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내일이 없다. 내가 '매일 일기를 써라, 써라' 강조하는 것은 과거를 공부함으로 깨닫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오늘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내 핸드폰에 오늘 할 일을 다 기록해놓았다가 저녁이 되면 아직 처리되지 못한 내용을 다시 기록한다. 그럼 아침에 핸드폰을 열자마자 미결된 내용들을 바로 볼 수 있다. 목회 30년 동안 이런 자세가 아주 체질화 되어있다. 습관이 생각보다 빠른 법이다. 아주 체질화, 습관화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청년대학부를 비롯한 교육부서, 나아가 우리 교단 전체가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날로 속도를 더해가며 발전해가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자세로 어찌 그들을 견인할 수 있겠는가? 더욱 지식을 함양하고 그들에게 의욕을 북돋아주고, 기를 살려주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호연지기를 심어줘야 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짜구나도록 주면 다 토한다. 성경에 꿀도 족하게 먹으라 하지 않던가? 다음에 또 먹고 싶고, 또 찾도록 심플하고 임팩트하게 리드해야 한다.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아라.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나를 가르치고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게을리 하지 마라. 지도자는 주도면밀해야 한다. 다섯 번 생각할 거 열 번 생각하라.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교육한 것을 노트하고 읽고, 반복 또 반복하라. 아주 내 것으로 만들어라."

목사님은 교육 후에 교육전도사들을 일으켜 교육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다시 발표해보라 하셨다. 발표하는 사람뿐 아니라 함께 듣는 사람도 그러한 반복을 통해 각인되는 시간이었다.

끝으로 목사님은 교역자들을 뼈해장국집으로 데려가 점심을 사주셨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목사님은 교육을 멈추지 않으셨다.

"왜 이 음식점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지 아는가? 뼈해장국에 김치, 깍두기가 다인데 그래도 맛있다고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몰려온다. 맛있으니까 오는 거다. 목회도 마찬가지다. 스프가 뜨겁기만 하고 맛이 없으면 누가 먹겠는가? 자고로 음식은 폐일언하고 맛이 있어야 한다. 너저분하게 갖다놓고 해봐야 맛이 없는데 누가 먹으러 오겠는가? 공부해야 할 아이들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간단히 말씀 증거하고 쌈빡하게 기도하고 보내는 거다. 그런데 줄 건 없으면서 마냥 붙잡고 있으니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보내겠는가? 이 작은 음식점에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화룡점정(畵龍點睛)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뼈해장국집이 잘되는 비결,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성공이다. 교육부서 뿐 아니라 우리 교단 전체가 부흥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은택 전도사**

예배에 앞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도전을 주시는 목사님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구 88체육관)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43:1~8)

여유와 자신감은 준비한 자의 몫!

100년 된 산삼이 있고, 50년 된 산삼이 있고, 10년 된 산삼이 있습니다. 50년 된 산삼이나 10년 된 산삼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된 산삼은 부르는 게 값이라 아무나 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100년 동안이나 음지에서 인내하며 준비해온 산삼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여 10년, 20년, 30년 된 것은 사람이 산삼을 택하지만, 100년 된 것은 산삼이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최고의 공부, 최고의 물건은 그것이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자는 대학이 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대학을 선택하고, 기업이 너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업을 택하고, 네가 배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지요. 준비한 자만이 갖는 여유요, 자신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유와 자신감은 준비한 자의 몫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늘 자신의 양들을 위협하는 사자나 곰을 물맷돌로 쳐서 물리쳤기에 물맷돌에 관한 한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삼상17).

여러분, 준비는 늘 평소에 해놔야 합니다.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놓은 자는 시험 때가 되레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자는 두렵기 때문에 그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지요. 갑자기 하려고 하면 무리가 옵니다. 그러니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알고, 오늘 노력하고, 오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마철에 지붕 고치지' 했다가는 늦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폭우에도 걱정이 없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고 준비보다 탁월한 무기는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찐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찌니라"(눅14:28~32). 이 말씀은 매사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생활에 접목해봅시다. 만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간판만 걸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자본금도 준비하고, 판로도 알아보고, 협력업체도, 함께 일할 사람들도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매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발 모양이 변형될 정도로 스케이트를 탄 것처럼 말입니다. 김연아 선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그가 밴쿠버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여유롭고 자신감에 넘쳤던 모습 말입니다. 그가 마침내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확정되자 뜨거운 눈물을 쏟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한 맹훈련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기업의 오너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정치가 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다방면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훗날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사느냐, 얼마나 여유롭게 사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목포에 있는 손자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 녀석이 친구들과 축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지 않던 녀석이 모처럼 축구를 하니 갑자기 잘 될 리가 없지요. 아마도 헛발질을 많이 했나봅니다. 녀석이 문자 끝에 '인생도 헛발질하지 말자'라고 썼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선수들이 공을 마음대로 다루고 골인을 시키는 것은 노력했기 때문이듯, 손자 말대로 인생의 헛발질을 하지 않고 골인시키려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략가인 손자는 최고의 전략전술에 대해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은 먼저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해 놓은 다음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무비유환(無備有患)도 성립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집은 대갓집인지라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손님들이 밀어닥쳐 급히 식사준비를 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도 늘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늘 밑반찬을 넉넉히 준비해놓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김치, 된장, 고추장에 마른반찬 등이 넉넉했기에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소래에 가서 각종 젓갈도 사다놓으시고, 시래기도 말려놓으셔서 대가족의 먹거리를 항상 준비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항상 넉넉히 준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 차를 운전하는 집사들에게 꼭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 놓게 합니다. 그래야 여유롭게 먼 길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엿새 동안 만물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그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예비하셨습니다(엡1:4~5). 그 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풍성한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4:19).

예수님도 우리를 죄악과 고통에서 우리를 탈출시키려고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을 버리시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말구유로 내려오사 성육신하셨고, 자신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조용히 30년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되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의 능력을 펴사 고통 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셨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확증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기회는 준비한 자들만의 몫이다

여러분, 준비한 자는 담대합니다. 노후를 준비한 자는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으니 당당합니다. 겨울을 준비한 개미는 당당했지만, 베짱이는 그렇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담대함이란 소리를 지르거나 기합을 세게 넣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자만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잠6:6~8).

요즘 중국을 보세요. 막강한 경제력,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큰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들의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 등소평은 '빛을 감춰 외부에 비치지 않도록 한 뒤,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 론을 펴며 준비해왔습니다. 상대방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때가 될 때까지 몰래 힘을 기른다는 정책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은밀히 칼날을 감추고 칼을 갈며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중국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면 어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사후를 위해 늘 준비한 자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 객원컬럼 ::

예수, 나의 기업(基業)

사람마다 무엇인가를 믿고 삽니다. 어릴 때는 부모 믿고 살고, 늙으면 자식 믿고 살지요. 여자들은 남편 믿고 살고, 남자들은 직업 믿고 삽니다. 이처럼 믿고 사는 것을 기업이라 하지요. 사업가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자살하는 뉴스를 접하는데 이는 그의 기업이 회사였는데 기업이 망하니 그의 삶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지요. 어떤 여인은 남편이 바람피운다고 음독자살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에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낳고 자라고 밥 먹고 뛰고 걸으며 일하고 쉬고 잠자고 숨 쉬는 것은 모두 이 기업 때문입니다. 즉 기업 때문에 살다가 기업이 망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만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기업을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것이지요.

토지와 가족들을 기업으로 삼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땅 믿고 친척과 부모 믿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다 버리고 떠나라 하시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라는 것이지요. 즉 땅에 속한 것을 기업으로 삼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업으로 삼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나라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에 그 땅 지키느라고 땅을 일구어 농사짓고 전쟁하고 피 흘리지만, 그 땅 빼앗기면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없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국토를 기업으로 주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땅은 빼앗기고 나라는 망해도 민족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과 법궤와 기물을 다 없애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마음속에 들어와 심비에 새겨있으니, 영원히 빼앗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부모, 남편, 자식, 자기의 실력, 또는 빽 믿고 살았지만, 돈, 직장, 사업, 땅, 재산 믿고 살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돈 믿지 말고 예수 믿고 살라. 직장이 너의 기업이 아니라 예수가 너의 기업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오늘의 메시지 ::

예수를 바라보자

한 아비가 아들을 명궁으로 만들고 싶어서 깊은 산속의 활 잘 쏘는 도사에게 아들을 맡겼다. 그러나 도사는 이 아들에게 활 쏘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몇 년간 청소만 시켰다. 그러고 나서 가르쳐준다는 것이 엉뚱하게도 쌀 한 톨을 실 끝에 매달아 놓고는 그 쌀 한 톨이 쌀 한가마니처럼 보일 때까지 쳐다보라는 것이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진짜로 쌀 한 톨이 한 가마니로 보였다. 아들은 기뻐서 도사를 찾았다. 이때 도사는 처음으로 활을 주며 가서 쏴 보라고 하니 눈앞의 쌀 한 가마니를 못 맞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가 쏜 화살은 쌀 한 톨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뚫고 벽에 박혔다. 드디어 명궁이 된 것이다. 명궁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바라봄의 법칙으로 만들어진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13:2) 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베드로의 눈에 예수만 보이니 물위를 걸을 수 있었고(마14:29), 중풍병자의 네 명의 친구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지붕을 뚫으니 나음을 입었다(막2:3).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니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눅19:4).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바라다봄으로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자신을 본받으라 말한다(고전11:1). 우리 목사님도 "내가 예수를 닮은 것 같이 나를 닮으라!" 말씀하신다. 목사님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셨다. 그러니 예수 같은 능력과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공은 닮은꼴과 정비례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며 닮아감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란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from Internet ::

거부가 된 동태장사 여 집사님

6·25전쟁 직후 울산에서 동태장사를 하며 생활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분에게는 오직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소서!" 그렇게 10년 가까이 기도했지만 그녀의 삶에 여전히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태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가보니까 그 할머니가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풀면서, "여보게. 이 동전들은 내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들인데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를 바꿔주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라는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동태 한 상자와 바꾸어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그 복주머니를 풀어보자 동전도 아닌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께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도 보니까 하도 이상해서 서울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들러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10만원을 줄 테니 팔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가슴이 덜덜 떨렸습니다. 45년 전에 10만 원은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내 물건이 아니고 감정만 하러 온 것이니까 팔 수 없다고 하자 가게 주인은 100만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그렇게 해서 5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안 팔겠다고 하자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600만원 주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갖고 가세요." 그때 목사님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느끼고 600만원에 팔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골동품은 6·25 때 미군장교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 그 미군장교가 전사해서 몸이 다 썩고 그 골동품만 남은 것을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6백만 원을 들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울산에 내려와 그 집사님에게 600만원을 보여주자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 계심을 보여주셨군요." 그 집사님은 400만원을 목사님께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갈밭은 풀 한 포기, 나무 한그루도 자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그 자갈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모두 5천 평인데 평당 300원씩 해서 15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분은 그 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어느 날, 집사님 집에 자가용 한 대가 멈추더니 두 명의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내놓고는 그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얼마 주겠냐고 물으니 1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며칠 후 그 신사 일행이 또 와서 1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판다고 하니까 2억 원을…. 이러다 결국 29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곳이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2억 원을 건축헌금으로 내놓아 교회당을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억 원으로 무엇을 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땅을 샀는데 몇 년 후에 그 땅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집사님은 수천억 원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것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직 한 기도, 살아생전 성전 하나 짓겠다는 단(單) 마음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1:6~8). 여러분도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기도하세요. 우왕좌왕,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 권사님께 응답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중심편집실

:: 특별기고 ::

이제 짐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이 글은 종로교구 이광주 전도사가 작고하신 권사님을 기리며 쓴 추모글입니다-

故 조영숙 권사

이광주 전도사

조영숙 권사님! 당신을 기립니다.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어색한 길을 걷기 시작한지 5년. 55살 중년의 나이에 신학교 생도로, 꿈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걷다 만난 당신이 오늘 새벽 사무치게 그리워 그저 시리도록 아픈 마음에, 그리움에 드릴 것 없고 바칠 것 없어 당신의 영전에 추모의 글 올립니다.

70세의 나이에 그저 13살 소녀같이 순수하고 앳되신 권사님이 졸지에 이리 떠날 줄을 우리 모두 아무도 상상치 못해 더욱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입니다. 제 첫 사역지인 종로교구에서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하나 세밀히 살피시고. 사랑이 넘치셨던 당신을 왜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고백합니다. 당신께 빚졌다고. 당신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도, 어떤 목회자도 따라할 수 없는 진정한 주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처 식구들 한사람 한사람 챙기시고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살피시던 그 사랑에 우리 모두는 이제 갚을 길 없어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어린 딸조차 눈물을 삼키는 대견한 모습에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어 내색하지 못했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무한정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전도사로 부임한 후 지금까지 당신은 제게는 천사이셨습니다. 그 어색하고 두려운 목자의 길을 당신이 도와주시고 걱정해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저를 신원해주셨다고 마치 주님 섬기듯 섬겨주신 그 모습. 그저 몸둘바 모르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제 설교가 은혜스럽다고 녹음하여 하루 종일 들으시며 좋아하시던 모습에 사실 우쭐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사랑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챙기시고 교구에 작은 구설수라도 있을라치면 그저 어린아이같이 걱정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던 그 소녀의 마음.

권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제 먹을 밥, 반찬 매일 챙기시고 무엇이든지 주시고 싶어하시던 그 마음에 동대문 시장 길가에서 바지 두 벌을 사주시고 기뻐하시던 모습. 눈에 선합니다. 무엇이든지 베푸시고 희생하시고 진정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이, 온유와 절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입으로 외치고 목회 철학이 된 성령의 열매를 구족(具足) 하셨던 당신이 제게는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권사님 그 모습 그 사랑. 제 인생 등불로 삼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베푸시던 3개월 같이한 시간 잊지 못할 겁니다.

권사님!

조카가 울면서 제게 얘기했어요. 올해 1, 2, 3월이 권사님이 평생에 제일 힘든 기간이었다고. 전기세 7만원 밀려서 가게에 전기가 끊긴 적 있다고.

오! 권사님. 그럼 내 바지 두벌 6만원이. 그 돈이었나요? 저보고 어쩌시라고. 차비하라고 5천원 손에 쥐어주시던 권사님 때문에 몸 둘 바 몰랐었는데.

그 사랑들 그 마음들 모두어 말씀으로, 사랑으로 갚겠습니다. 권사님 가시는 길. 꿈으로 예시해주시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인간의 정과 슬픔을 그저 속으로 속으로 삼킵니다.

권사님!

한줌 재로 돌아간 건 권사님이 아니랍니다. 권사님은 낙원에서 나사로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웃고 계시잖아요.

스산한 삶 사신 것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것 아닙니까. 위로해 주시려고, 내 딸아 수고하고 수고했다 안아 주시려고. 이제 그 수고로움 다 내려놓고 슬픔도 괴로움도 다시없을 그 곳. 영원한 평강 속에 위로 받고 누리실 일만 남았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가신 그 천국.

거기서 거기서 다시 꼭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해요 권사님!

종로교구 이광주 전도사 올림

Good News

밀리언셀러 소설 '빙점'의 작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세의 꽃다운 나이에 폐결핵으로 13년간 병상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암에 파킨슨병과 척추골상까지 겹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녀에게 강렬한 한줄기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42세의 늦은 나이에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써서 아사히신문 소설 공모전에 당선되어 일약 일본 최고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그녀의 작품이 가장 많이 번역되었고 많이 알려진 작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지난 1999년 77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얻게 된 인생의 귀한 깨달음이며 진솔한 고백입니다.

인간이 죄를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서도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내가 매일 기쁘게 ::

내리막을 즐기는 인생

얼마 전, 막심 므라비차(Maksim Mrvi-ca)의 내한 공연을 보고 왔다. 막심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크로스오버 전문 피아노연주자이다. 그는 빠른 속주와 화려한 무대 매너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 많이 알려진 피아니스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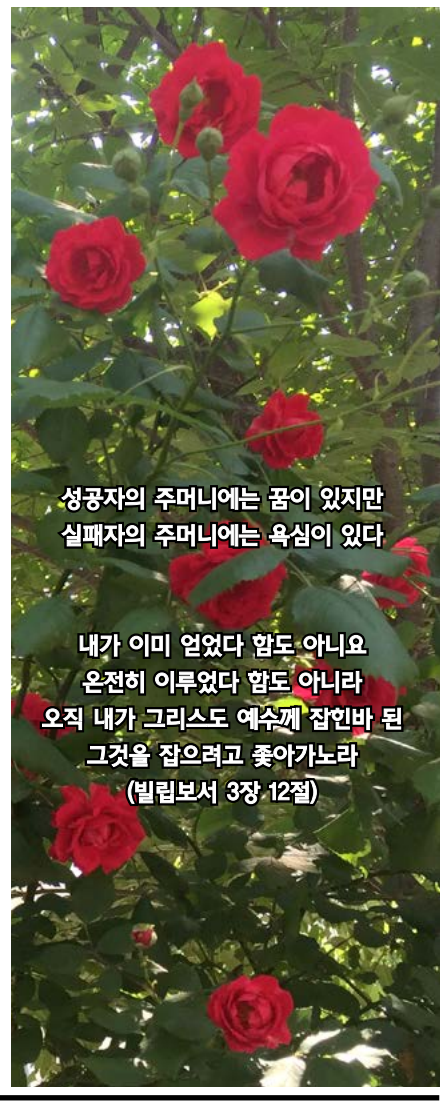
그의 어린 시절 크로아티아는 전시 상황이었다고 한다. 하루에도 1,000개가 넘는 포탄이 터지는 시기였다. 그는 지하 연습실에서 포탄 소리를 들으며 피아노 연습을 했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피아노 때문이었으며,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도 피아노 때문이었다. 그의 과거를 알고 난 뒤에 다시 듣는 그의 음악은 더 남달랐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앙코르곡이 끝나도 청중들의 박수는 끝날 줄을 몰랐다. 인사에 인사를 거듭하는 막심의 얼굴은 말 그대로 빛이 났다. 그의 표정에 가득한 미소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고된 연습 시간들을 보상받기에 충분해 보였다.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의 시간을 보냈을까?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아노에만 몰두했던 15세 막심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세상살이를 길에 비유한다. 각자가 가는 길은 그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나만의 길이다. 그래서 삶은 늘 고되고 힘들다. 끝이 보이지 않거나, 보인다 해도 막막하고, 내가 올라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발걸음은 더 무거워진다. 과연 나는 시간이 지난 뒤에 막심처럼 화려한 박수는 아니더라도 내가 걸은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한없이 아래로만 곤두박질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엄마의 말을 통해 응답해주셨다.

엄마는 성공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그것이 의무와 부담이 되는 순간, 삶의 기쁨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면, 내리막길 그 자체를 즐기면 된다고.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바닥을 칠거고 바닥을 치면 다시 오르막이 나타날 거라고. 좋아서 재미있어서 시작한 일이니 내리막길도 즐기면 그뿐. 성공과 목적은 차후의 문제라고.

1년 365일 중에 해가 구름에 가리지 않는 화창한 날은 100일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얼마 되지 않는 그 날들이 화창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나머지 260여 일이 흐리고 비가 오기 때문이다. 막심이 전쟁의 포탄 속에서 피아노에 몰두했던 것도,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길에 회의를 품는 것도 찬란한 날을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싶다. 그러고 보면, 야곱과 요셉, 다윗, 등 셀 수 없는 성경 속 인물들이 고난의 시간을 거쳤고, 총회장 목사님도 물 없는 사막과 눈 덮인 산야를 지나오셨다. 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 믿는다. 다시 기운을 내어 내리막길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가져야겠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전3:2~6).

전훈지
ppjee@hanmail.net